

발 간 사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가 밝았습니다.

새 세기의 도래는 누구에게나 의미를 주지만, 특히 우리 민족에게는 각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 민족에게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던 분열과 대결을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올해로 2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관계로 전환시켜 나가는 것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공존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고, 남북간 교류와 협력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지원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또한 미·일 등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추진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결과 남북관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북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대규모 경협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북한내에 변화의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미·일 등 우방국들과 북한과의 관계개선 노력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며, 우리의 포용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 냉전 종식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 시작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성취하는 문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조 속에 우리 민족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소명 앞에 정부는 반목과 대결로 깊어진 남북간 분단의 강에 하나씩 ‘징검다리’를 놓아 서로 조금씩 다가감으로써 통일의 길을 열어 나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 분야에서 내실있고 구체적인 과제들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의 남북 경제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경제교류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이산가족 1세대에 대해서는 생사확인·상봉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반도 문제의 실질 당사자인 남북이 당국간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류협력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올 수 있도록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북접근에 있어서 다변화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체육·문화·예술·종교·학

술 등 다방면에서 북한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남북간 행사를 적극 발굴·추진함으로써 인적 왕래 및 대북 접촉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남북관계의 변화가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 연관되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은실천’을 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이익과 민족의 복리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00 통일백서」는 지난 2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에 대한 종합적 기록입니다.

지난 2년간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큰 밑그림을 그린 시기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00 통일백서」에는 이 같은 성과가 담겨 있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대북정책과 통일노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

2000년 2월

통일부장관